



인 사

▲ 해양수산부

- 과장급 정보

•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허삼영(12.12),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정수철(12.20)

- 5급 정보

•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안명호, 조규동(12.1), 해양정책실 류성봉(12.2), 수산정책실 김성희(12.12)

살아 생전에 꼭 가봐야 할 자전거 여행 52코스



제 목 자전거길 따라 떠나는 우리나라 해안여행  
 가격 25,000원  
 저 자 농림수산식품부·한국어촌어항협회  
 펴낸날 2010년 5월 10일  
 판 형 4×6배판 변형(188×230) | 올컬러  
 분 량 424쪽  
 분 야 국내도서 > 여행 > 국내여행 > 전국  
 ISBN 978-89-6000-870-0 13980

넥서스BOOKS

(121-840)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-2 전화 330-5500(대) | 팩스 330-5555  
 (내용 문의) 편집부 양정희 | yjh@nexusbook.com | 330-5516

어촌 View Point 100 ⑫ 전남 영광 법성포

조기 떼 부르는  
 신명난 춤사위,  
 법성포 단오제



법성포 단오 선상풍어제

- CANON EOS 5D MARK II
- 초점거리 16mm
- 6월 24일 pm 3:30
- 촬영모드 TV/ISO160
- 셔타스피드 1/250초
- 조리개 F9
- 화이트밸런스 Auto



영광 혹은 법성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굴비다. 누가 뭐랄 것 없이 영광 특히 법성포는 굴비의 본향이다. '영광굴비'라는 이 특산물은 예로부터 칠산 등 주변 바다와 멀리 연평도 어장에서 잡아낸 조기를 법성포 여인들이 가공해 맛을 낸 것이다.

예나 지금이나 법성포구는 조기가 실려 들어온다. 영광 어업인들이 잡아낸 것도 있고, 서남해안의 난다하는 어업인들이 잡아낸 것도 많다. 이 어업인들 중 누구랄 것 없이 단오 날이면 법성포구에 배를 묶어놓고 먹고 마시며 사나흘을 즐겼으니 선유 놀이의 본모습이다. 물론, 자신들이 제관이 되어 용왕제를 지낸 다음인데, 강릉단오제와 더불어 가장 큰 어촌민속 행사였다.

달라진 것은 제봉행선에 오른 사람들의 옷차림이다. 작업복 중 깨끗한 옷을 골라 입은 어업인들이 팽고리와 장구를 치던 모습에서 지금은 농악대며 사물패에 무속인들까지 화려한 복색차림으로 배 위에서 놀이판을 벌이니 그 걸러풀한 모습에 카메라가 집중된다.

여기도 좋아요! 그 이름 자체에서 불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'법성포(法聖浦)'는 짐작대로 백제에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인도의 스님 마라난타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라는게 정설. 영광군에서는 법성포 바다 들머리에 백제불교 전래지를 주제로 한 테마사찰을 세워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으니 가보아도 좋을 듯.

신나게 즐겁게! 기왕이면 단오날에 맞춰 가면 다양한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 좋다.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전국무용경연대회, 장사씨름대회며 전국연날리기대회 등 촬영대상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.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좋은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.

배꼽시계 꼬르륵! 단오날이 아니더라도 법성포에서 먹을거리로 첫손에 꼽히는 게 바로 영광굴비 백반이다. 특히 '일번지식당' 등 법성포 대로변 음식점이 유명하다. 영광굴비 백반 한 상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. 찌개나 조림, 찜에서부터 구이에 이르기까지 조기와 굴비 요리는 당연지사. 법성포에서 나는 온갖 해물도 손맛을 낸 수십 가지의 밑반찬이 입맛을 돋운다.

쉬어 가고 싶을때! 법성포 주변에는 다양한 숙박업소가 산재해 있다. 특히 최근 공사를 끝낸 뉴타운 부근에 모텔과 펜션이 밀집해 있으니 잠자리 걱정은 안해도 된다.



▲ 영광굴비



▲ 법성포 장터



▲ 관광객 첫새우 즉석 구매



▲ 갯벌 투망